

[우리 소설, 우리말]

# 몸으로 배운 언어의 걸쭉한 맛

—한창훈의 소설 <홍합>을 읽으며

민충환

부천대학

## 1. 들어가면서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운 언어와 집에서 가족 간에 쓰는 언어의 차이를 생각하면 된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운 언어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가 같은 언어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집안마다 그들이 실제 일상사에서 쓰는 언어는 서로 다르며 거기에는 그 언어만의 독특한 맛이 있다.

소설가라고 하여 이와 다른 것은 아니다. 소설에 나타난 언어를 보면 작가마다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춘원의 규범적인 언어, 김동인 소설에 나오는 평안도 사투리,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나오는 질편한 호남 사투리……

그렇다면 소설가들은 어떤 언어를 쓸까. 물론 두 가지 언어를 다 구사할 것이다. 서술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대화의 경우에는 그 대화를 이끌어 가는 인물의 나이와 직업 혹은 출신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의 언어가 구사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가는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의 언어를 다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게다가 출신 지역에 따른 언어를 구사해야만 문학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 알고 있듯이 황순원의 <소나기>는 교과서적인, 규범적인 언어들이다. 그런 언어들로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 2. <홍합>이란 소설의 어휘들

한창훈의 소설을 읽다보면, 이 젊은 작가가 어떻게 이런 어휘들을 구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특히 제 3 회 한겨레문학상을 받은 장편소설 <홍합>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어휘가 실로 놀랄 만하게 자유자재로 구사되고 있다. 즉, <홍합>이란 소설 속에 구사된 어휘들은, <홍합>에 묘사된 '홍합공장'의 노동자 출신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힘든 어휘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며 몸으로 배운 언어이어야 할 것이다.

한창훈이 누구인가.

그는 전남 여수에서 출생하여, 한남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땀>이 당선되며 작가가 된 사람이다. 그의 작품에는 늘 '구수한 입말과 해학적인 문체로 서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의 장편 <홍합>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되는 어휘들을 추려보았다. 물론 앞뒤 문맥을 보면 대략 짐작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온갖 사전을 뒤졌지만 사전에도 없는 어휘들이 많았다. 할 수 없이 작가 한창훈에게 직접 연락을 했고, 작가는 필자 덕에, 단어의 뜻을 써내야 하는, 고생을 했다. 이제 소개하는 어휘들은 <홍합>에 나오는 어휘들이지만, 사전에는 없는, 작가 한창훈이 구사하는 것들 중에서 원고의 분량상 간추린 것들이다.

**가나다라 해보다** : 학식이 있다.

\* 공장장은 직책이 반장보다 높고 문기사는 대학썩이나 다니면서 가나다라 해봤다지만 그러한 파탄에는 묘책이 없었다.

**갑자을축 하다** :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떼다.

\* “하긴 그렇다. 뒷물 한번 하고 아닌 보살로 갑자을축 하고 앉아 있으면 구신이 와도 모를 것이다.”

**갯두렁 건달** : 젊은 사내들의 혈기를 얹잡아 부르는 말.

\* 그러나 저쪽 편에 관공서에서 방귀깨나 끼는 누구네 아들이 끼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은 근본 없는 갯두렁 건달들이 친구들과 암전히 담화를 나누던 순박한 청년들을 폭행한 것으로 변해버렸다.

**궁시령 콩시랑하다** : (큰 뜻 없이) 약간의 불만으로 인해 종알거리는 모습.

\* “합자는 작을수록 맛이 좋다는 것을 명칭한 것들이 모르는 모양이구만.” 궁시령 콩시랑했지만 작업 지시는 작업 지시였다.

**길쭉부테하다** : 쓸데없이 너무 길어 모양새가 좋지 않음을 이르는 말.

\* 아버지 코는 오도막한 강아지 코인데 하필 세 남매가 길쭉부테한 어머니 코를 닮았다.

**낄낄 꼴꼴이다** : (조금 천박하게) 사내들끼리 죽이 맞아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

\* 황기사야 야간 담당이니 이제 제 집으로 갈 일만 남았지만 공장장까지 덩달아 킬낄 꼴꼴이었다.

**다갈다갈** : 계란 따위를 삶을 때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서 따온 의성어.

\* 해는 중천으로 오르면서 천지사방은 뜨거운 햇볕에 다갈다갈 볏아지기 시작했다.

**단구멍이 친구명만 못하다** : 아무리 맛이 좋은 음식이라도 성교하는 맛을 당할 수 없다는 뜻.

\* “...단구멍이 친구명만 못하다고, 오죽했으면 미추불문(美醜不問)이라겠소. 다 그것이 좋아서 하는 소리제.”

**따갈따갈** : 순종하지 않고 일일이 대꾸하는 모습을 이르는 말.

\* “말이야 아무리 옳아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절이라는 것이 안 있냐, 항께, ...예의 따진다면 아저씨는 길거리에서 담배 물고 땡기는 고등학생들한테 피우지 마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 뭐 그렇게 따갈따갈 하등만.”

**똥 밟고 자빠진 꼴** : 연달아 일이 꼬여 낭패 났음을 이르는 말.

\* “씩을 것, 어째 친구를 사귀어도 꼭 저같은 것들 찌리만 사귀는지 모르겠다. 참말로 하나같이 똥 밟고 자빠진 꼴들 하고는. 아이구 내 속이야. 어째 저것은 질바닥에 굴러 땡기는 방법대원 아들 하나도 못 사꿘다냐.”

**마디다** : (소모품이) 단단하여 쉬 닳지 아니하다.

\* 손발이 마디고 살이 찰져 차돌멩이 같았다.

**말수더구질** : 늘어놓는 말솜씨.

\* 여인네들은 저도 모르게 말수더구질을 주고받느라 무거운 줄도 모르고 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이다.

**말쭙꼬푸** : [ㅁ] 맥주컵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소주를 이런 것으로 묵으믄 맛이 난다냐. 어이, 말쭙꼬푸 좀 갖고 와 봐.”

**묵은테기** : 나이 든 여자를 해학적으로 이르는 말.

\* 묵은테기 하나 내려놓고 정류장 사거리를 지나 순천 가는 국도로 접어들었다.

**벌레 먹은 오이 쪼다리** : 근골이 볼품 없고 허약함을 이르는 말. ‘쪼다리’는 짤막하게 남은 동강이나 끄트머리.

\* 근태 아빠가 벌레 먹은 오이 쪼다리라면 김씨는 체격 면으로나 체력 면으로나 씻어놓은 조선무였다.

**성질빼기를 문패로 두다** : 남편의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고약함을 이르는 말.

\* 남편과 아예 척지고 사는 광석네는 예외였으나 성질빼기를 문패로 둔 석이네가 단골이었고 사람 좋고 마음 너그러운 쌍봉댁마저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얌전이나 교양과는 서로 총질 칼질하게끔 생기다** : 행실이 몹시 거칠고 예의가 없다.

\* 얼굴이 하나같이 얌전이나 교양과는 서로 총질 칼질하게끔 생긴 것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손도 씻지 않고 오는 관계로 얼굴과 손과 기타 등등 모든 곳에 피칠이었다.

**이시렁 저시렁** : 이러한 듯 저러한 듯 아무 대중없이.

\* 하루 동안 이시렁 저시렁 소란스럽던 마을은 이제 방이나 술집에 들어앉은 사람들과 감풀에 기우똥 배를 깔고 누운 고깃배가 한가지로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쫓피리** : ㉠ 행동거지가 여물거나 바르지 못한 사내를 속되게 별명으로 부르는 소리.

\* 쫓피리가 뛰여 쫓피리가. 애편네들이 돈 번다고 우르르 몰려댕김서 술이나 처묵고 흑시 어디 놀 일 읊나 눈이 시빨개 갖고 사는 것들이 닝게 서방을 알아도 쫓으로 알제. 그런 것들이나 되니께 쫓피리라고 부르는 거여. 하긴 쫓이 피리기는 하다 니미.”

**죽탕 끝탕이 되다** : 곤죽이 되다. 피로가 극에 달하다. 형세가 몹시 나쁘다.

\* 피 토하는 것이 이미 그의 육신만이 아니어서 정신과 몸뚱이가 죽탕 끝탕이 되어 뒤섞이고 뒤틀리고 끓어 넘치고 가라앉고 하는 시간이 지나자 아침이 왔다.

**짜다만 행주 대하듯 하다** : 행실이 여물지 못해 무시하다.

\* 이렇게 말했던 김씨 말대로 워낙 사방팔방을 들쭉시키고 다니는 이들이라 누구네 서방 알기를 짜다만 행주 대하듯 해서 그렇기도 했으나 인간 같지 않은 별명이 붙은 이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콩 볶고 팔 찌고 하다** : 큰 의미 없이 소란스럽게 말을 주고받다.

\* 아무래도 묵은 쪽에서 말을 꺼내고 젊은 쪽에서 말을 받아 이러네 저러네 콩볶고 팔찌고 하다가 다시 묵은 쪽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대략적인 순서였다.

**헐헐하다** : 헐하다. 풍성하거나 촘촘하지 못하다.

\* 꼼꼼한 할머니들은 하루 일과가 끝날 때마다 그날 칸 양을 박스 쪼 가리에 적어 달라고 해 날마다 차곡차곡 챙겨놓고 아들이나 손자 손녀더러 계산해 달래서 모두 얼마인가를 적어 가지고 오기도 했고 헐헐한 이들은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갔다.

### 3. <홍합>이란 소설의 맛

<홍합>은 한창훈에게는 더없이 익숙하고 정겨운 고장 이야기요, 그가 애착을 갖는 섬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향수 어린 보고서이다. 작가는 긴장한 보통 사내보다 곱질의 생활력을 지닌 씩씩한 ‘아줌마’들을 주요 인물들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펼쳐간다. <홍합>에는 한창훈 소설에서 종종 등장하여 웃음을 머금게 하던 육덕 있고 해학적이고 서글서글한 중년 여성들이 총출동한다. 소설의 무대 역시 여수 근처의 홍합 공장이며, 이들이 한여름 퇴약벌에서 홍합을 까는 고된 노동을 하는 생활 정경이 소설의 주된 내

용이다.

문학평론가 백지연의 말처럼, <홍합>은 ‘홍합공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일상사이다. 그러나 평범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중년 여인네들로 이루어진 노동자들이다. 그러니 노동의 과정에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반장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노동요처럼 주고받는 말들이 모두가 성(性)과 관련한 결속한 입말들이다.

앞에서 소개한 어휘들은 바로 이러한 입말들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바로 작가 한창훈이 대학 시절, 학교를 잠시 그만두고 양식 채취선과 오징어 잡이배를 타기도 했으며, 공사관의 잡부에서 포장마차 사장노릇까지 다양한 사회경험이 밑거름이 된, 몸으로 배운 언어들이다. 그렇기에 작가 박완서는 ‘한창훈의 소설을 읽는 맛은 냉동식품이나 방부처리된 포장식품만 먹다가 싱싱한 자연산 푸성귀를 먹는 맛과 같다’고 평가한다.

한창훈의 소설 <홍합>의 맛, 그것은 작가 한창훈이 몸으로 배운 언어의 결속한 맛이다.